

“참선 기도 사경 수행으로 영원한 자유 행복 찾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 ‘반결제 법회’...공부점점

올미년 하안거 재가수행 현장 ⑤

올미년 여름 재가안거수행에 동참한 부산지역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스님)는 지난 13일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재가안거수행에 참여한 2000여 명의 불자 가운데 4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금강경) 독송과 수진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선, 다라니, 사경, 기도 등으로 나눠 수행 점검을 실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스님은 법문을 통해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어낼 수 있다”고 설했다. 스님은 “평생 불교를 가까이해도 가르침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서 “재가불자들이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고민의 자리가 재가안거수행”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재가안거수행에 동참한 부산지역불자들의 정진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오늘 반결제법회를 통해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결제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참선, 다라니, 사경, 기도 등 수행법에 따라 분반하여 수행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모듬별로 스님들이 참관하며 불자들의 공금증을 풀어주었다. 불

자들은 재가안거수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바랐다. 박진희(법명 수련화) 불자는 “평소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재가안거 기간에는 21일 동안 광명진언을 기도를 하며 입장이 소멸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서 “반결제 법회에 동참한 분들의 수행담을 들으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심영희 불자(법명 진희)는 “참선 수행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서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밝혔다. 김봉희 불자는 “매일 300배를 하고 아비라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절을 하며 자각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희 불자는 “참나를 찾아가는 90일간의 재가안거수행뿐 아니라 앞으로 기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참선 수행을 통해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반결제법회는 소감문 발표에 이어 공지사향,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스님은 “재가불자들이 각자의 수행경험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재가안거수행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봉행한 이날 하안거 재가안거수행 점검 반결제법회는 대중 앞에서 공부내용을 공유하는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선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산=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지난 13일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재가안거 방부를 들인 2000여명 중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하안거 재가안거수행 점검 반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참선 수행모듬.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난치병 어린이를 대표해 김성재 군과 아버지 김준석씨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초청, ‘제15회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인 기금을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건강 회복되길 스님이 기도해줄게”

복지재단, 3천배로 모은 1억3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29명 도와
총무원장스님 “1인당 지원 확대”

신경성 난정으로 귀에 특수 보청기구를 꽂고 다니는 열세 살 성재는 지난 13일 일찌감치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경북 의성에서 6시간을 달려 조계사에 왔다. 심장근육이 정상보다 두꺼워져 발생하는 기능장애로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이 있는 성재는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몸을 이끌고 틈틈이 쉬면서 어렵사리 서울에 닿았다.

“병원 가려고 서울 오는 일도 잦았어도, 아들놈 손잡고 서울 사찰에 온 적은 처음”이라는 아

버지 김준석 씨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들어섰다. 서울 오는 도중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비빔밥을 먹었다며 자랑하는 성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접견실에 들어서도 긴장한 아버지와 달리 강종강총무 뒤에서 생강생긋 웃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펼친 ‘제15회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인 기금을 전달했다. 대표주자로 참석한 김성재 군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인공이다. 총 1억2800만원에 달하는 모연금은 성재 외에도 29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성재 군을 환영하면서 두 부자(父子)

에게 힘내라며 염주를 손수 걸어주면서 손을 잡아줬다. 총무원장 스님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스님이 기도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복지재단 실무자들에게 “내년부터는 수혜자 규모를 줄이더라도 환우 1인당 지원금이 강화되어 병원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일용직 근무 중 부상을 당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아버지 김씨는 “불자로서 살다보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생긴다”며 “우리 아들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가족 잘 지키는 기장이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 자리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도 배석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성철스님 래퍼되다’ 백련불교문화재단·파라미터 11월 14일 랩 창작곡 대회

금강경 강송대회서도 랩 선보여

빠른 비트와 가사로 구성된 대표적인 대중음악 장르인 랩(RAB)과 불교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져 주목된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등은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는 ‘속사포 래퍼’ 가수 아웃사이더의 소속사인 아싸커뮤니케이션의 후원으로 오는 11월 14일 서울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성철스님 래퍼되다’ 랩 창작곡 대회를 연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조계종 제7대 중

정을 역임한 성철스님의 법어를 주제로 4분 이내 랩과 힙합을 창작해 선보인다. 중학생 이상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랩, 힙합을 기본으로 한 댄스곡을 기본으로 레게, 트립, 발라드, 록, 뉴에이지, 포크, 국악, 클래식 등 제공된 비트를 활용하면 된다. 지정가사인 성철스님의 법어를 기본으로 하되 의미 전달에 맞게 음운 덧붙이는 메이킹도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려면 신청서, 녹음 데모 파일, 완성동영상을 오는 10월10일까지 이메일(723-6166@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동영상상을 통해 선별된 창작곡에

한해 본 대회를 진행하며 △대상(1팀)에 500만원 △청소년 금상 100만원, 일반 금상 200만원 △청소년 은상 50만원, 일반 은상 100만원 △청소년 동상 30만원, 일반 동상 50만원 △청소년 인기상 20만원, 일반 인기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통해 음반에 수록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조계종 학인염불시연 대회에서 〈반야심경〉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개사하고 랩과 접목한 신세대 염불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또 오는 10월17일 본지와 서울 금강선원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에서도 경전과 랩을 활용한 색다른 포교법이 등장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ic@bulgyo.com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 ‘소셜 빅마켓’ 개원

4면

• 신도품계 첫 번째 단계

신도님, 혹시 2015년 교무금 영수증

신도교무금 납부는 신행생활의 첫걸음이며, 조계종 신도의 의무입니다.

Q 신도교무금은 어디에 사용 되나요?

신도님들께서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 재적사찰 : 신도교육, 신도관리, 포교활동, 신도회 운영 등을 위한 기금
- 종단 : 신도포교사업, 신도교육사업, 복지사업 등 종단 신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Q 발심품계(신도증)는 매년 새로 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발급받으신 발심품계(신도증)는 재적사찰 변경, 분실, 명기되어있는 내용 변경 등 이외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재적사찰을 통해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신도교무금은 어디에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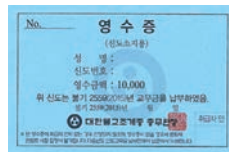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제6조 교무금 납부 시기)에 의거하여 신도는 2/4분기 말까지 교무금을 재적사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신도교무금 납부는 꼭 재적사찰에만 해야 하나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은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도교무금 납부는 재적사찰에서 납부하시도록 관련 중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재적사찰에 참배하시면서 신도교무금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재적사찰 방문이 어려우신 신도님들께서는 신행생활이 가능한 조계종 사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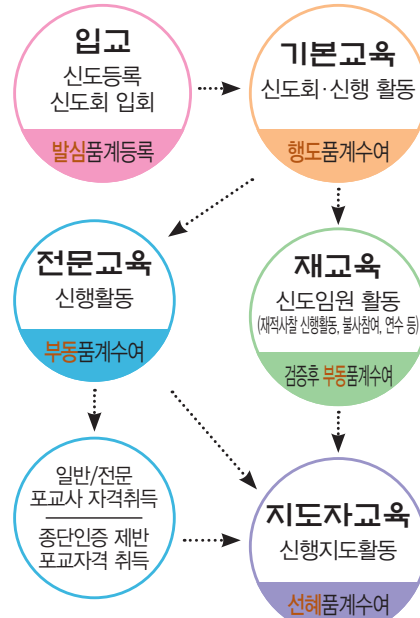
Q 신도교무금을 매년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 할 수 없나요?

신도교무금 납부는 신도의 의무사항으로 매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재적사찰을 통해 밀린 교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있으세요?

〈신도교육 및 품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02.2011~1996, 1904